



“지금이야말로 힘찬 고우(GO)를!”

신 정 재

(본지 편집위원 과학사료공사 사장)

축산업은 과연 계속해야 하나요?

년전에 어느달 편집회의를 마치고 업계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격의없는 한담을 하는데 S.편집 위원이 느닷없이 “도대체 축산업을 계속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하고 말문을 열었던 적이있다. 물론 그 당시는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갑작스런 소비증가로 인하여) 폭등하여 정부에서도 축산진흥계획을 세워 영농자금을 대폭 지원해 주어 양돈 비육 사업을 장려한 후에 다시 계속 쇠고기 돼지고기 값이 하락 되지 않아 수입을 개방한 시기여서 양돈, 비육, 나아가 육계업 까지도 도산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때의 얘기였다.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그러니 축산을 해야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었다. 이에 대해 축산업은 주곡농업과 마찬가지로 안보적 차원에서 계속 발전유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진흥정책은 물론이고 축산업자 자신들의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질문과 답변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알려줄려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축산인의 심정을 표현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한술 더떠서 작년도에 달걀 수입까지 개방되었을때는 양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이 시작되고 비육 양돈업이 막말로 죽을 췌다고 해도 같은 축산 인으로서의 동정은 했을 망정 강건너 불 구경하듯(?) 설마 계란까지 수입하랴?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듯 당황하고 좌절 했던일이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즉시 달걀의 수입관세를 올려

실질적으로 수입금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어 일시적으로나마 채란 업계의 도산을 예방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축산물 수입에 의한 일시적인 축산 업계의 위축 내지 도산상태는 축산물의 적정 수입으로(국내 소비자 가격의 적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유파동, 이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수출의 둔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일시적인 후퇴 등으로 인한 축산물 수요의 급격한 하락은 축산업계의 더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양계 업계로서는 일찌기 맞보지 못했던 큰 충격임에는 틀림 없다 하겠다. 축산 업계외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니 속수무책임에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불황의 기억은 또 다시 쉽게 잊어진다

그러나 지난 십 수년동안 계속 양계업이 고도 성장만 한 것은 아니다. 몇년마다 크고 작은 불황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크고 작은 불황이 올때마다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수 많은 회합도 가져 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마련해 보았지만 그 불황이 얼마 안가서(다행이도) 호황으로 전환되면 언제 불황이 있었더냐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똑같은 불황이 다시 올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했다는 원인 분석과 함께 그에대한 해결책 나아가서 축산, 양계발전을 위한 제도는 하나도 연구 책정됨이 없이 지나쳐 버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축산업계는 물론이고 양계업계 내에서도 부화종계업 채란업 부로일러 업등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면이 없지도 않지만 너무 자기가 속하는 업에 대해서만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해 오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부로일러 출하 가격이 좋다고 너도나도 프리미엄을 주어가면서 병아리를 구입하는가 하면 2 개월 후면 과잉생산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병아리 분양을 하는가 하면 채란 업자가 종란을 생산하기 위해 종계를 대량사육 했다가 종란은 커녕 식

부질없는 욕심으로 몇점 더 이기려고 고우를 했다가 상대방이 먼저 이겨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의 신세가 되지 않을까?

란으로 팔기도 힘든 경우라든지,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부화를 많이 했다가 못 팔면 생매장까지 한다든지 하는 무질서한 행동이 계속 되었다.

이러한 양계업계 나아가서 축산업계 발전에 저해되는 사고 방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름아닌 부질없는 욕심과 안이한 생각에서 온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십 수년간 계속 고도성장을 해 왔고 국민소득도 확실히 증가되다보니 축산물이 계획이상으로 소비가 되어 왔다. 따라서 축산물은 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너도나도 시설 확충 일변도로 증설만 해왔고 또 그래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조건은 우리나라 타 산업에서도 종종 거론되고 있지만 수입이 금지된 조건하에서 국제적인 경쟁(가격경쟁)을 무시한 운실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은 일이년 해온 것이 아니고 십수년간 계속 되어 왔고 또 그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계우회나 친목회 사무실에 벌어지는 고스톱판들

전국적으로 양계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에는 수십개의 친목회, 계우회, 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공동구매 판매를 통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업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기술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으로써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업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보다는 친목위주의 모임으로 변질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다행이도 근자에 와서 전국의 계우회가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여 여러가지 공동 이익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좋은 일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승승장구 매년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경영이 되다보니 양계장에서 보다는 계우회나 기타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안이한 행동을 하는 양계인이 늘어났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일년에 한 두번 봄꽃놀이 단풍놀이등 관광여행

으로 기분을 전환 한다든지 혹은 낚시 등산등 여러가지 리크리에이티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다 건전하고 정신건강상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계우회나 친목회 사무실 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는 조그만 내기 혹은 게임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것은 화투놀이 마작 포카등이 있지만 보다 쉽고 서민적인 인기를 가진 화투 놀이가 제일이고 특히 「고스톱」화투 놀이가 유행인것 같다. 이 고스톱이란 화투놀이는 계우회나 친목회 사무실에 한 두번 방문한 사람이면 아마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고스톱의 묘미는 고(Go)에 있고 그래서 점수를 더 올려서 내기의 승부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데 있다 또한 적당히 스톱(stop)도 해서 적당히 이길수도 있는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게임이다.

또 셋이하는 놀이이지만 자신이없거나 여타 상대방의 패가 좋을때는 자기는 안 할 수도 있다(제 분수에 맞게) 이 고스톱 화투놀이를 보면 양계업 혹은 축산업계의 실태를 보는것 같아서 좀 씩씩하다. 계속 양계업이 성장한다고 내서 무턱대고 증축 증설만 하다가 도산 상태에 빠진 것은 부질없는 욕심으로 몇점 더 이길려고 “고”를 했다가 상대방이 먼저 이겨 낭패를 당하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병아리 많은 달걀 많은 부로일터를 생산만 하면 쉽게 팔 수 있었던 시절!

쉽게 “고”만 할 수 있는 시절을 지나도 벌써 지난 것이 아닐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의 실패가 되거나 않을까?

이제 더 많이 생산만 해 놓으면 더 많은돈을 벌 수 있다는 신혼여행 같이 달콤한 시기는 지나고 새로운 각오로 수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이야 말로 좌절하여 “스톱”을 할 것이 아니라 욕심없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양계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힘찬 “고”를 외칠때가 온 것이다.

다함께 힘찬 고(Go)를 외칩시다.